

양성당기(養性堂記)

1603_정업(鄭睟) 지음_45.0×100.0cm



정업(鄭睟, 1563~1625)이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부탁으로 1603년(선조 36)에 지은 양성당 기문으로 양성당 주변의 경관과 함께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 사연, 그리고 '양성(養性)'의 의미처럼 학문의 큰 줄기가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정업은 본관이 초계(草溪) 자 시회(時晦) 호 수몽(守夢)으로 김장생과 같은 율곡 (栗谷) 이이(李珥)의 문인이다. 대사성, 대사헌,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으며 문집으로 『수몽집(守夢集)』이 전한다. 기문을 쓸 당시 정업은 종성부사(鍾城府使)로 재직하고 있었다.

양성당記

沙溪公自壬寅歸連山先隴下以居 舊有亭 乃崔斯文清江公所構 厥後裔不能守 沙溪之伯祖父貨而得之 亭之入金家三世矣 丁酉 賊兵剽湖西 亭亦不能免 惟舊基存焉 沙溪公慕而新之 揭其號曰養性 養性乃其積力而老不懈者 故名之以此而自警焉 余待罪塞垣 去沙溪所居二千餘里矣 沙溪公以書訪死生 因道亭之有山有水有泉池有松竹凡上下前後所可觀者以求記 噫 相別久相去邈矣 其不知僕之愚暨經年 待盡朝暮 無意於筆墨間也 然沙溪公吾所慕也 養性吾所志也 溪山水石之勝 所欲飄然於其間而方未得者也 不能無有感於心 有慨於懷 力疾而起 整襟而坐 信筆而書以寄焉 不文非所計也 蓋人莫不有其性 知所以養之者鮮 雖或略知其養之方 而能養之者絕無於斯世也 沙溪公自少問道於栗谷門 浸灌義理 培養根本者積年有所 其於養之方 知之明矣 養之功 亦可謂篤矣 靜則存之而養焉 動則察之而養焉 事親則顯親而盡其誠 居官則顯謬而竭其力 發言而不失其倫者 養此也 應物而求合其則者 亦養此也 而猶歉然於心 食息之或怠是懼 凡於寓目者 必寓警焉 亭游燕之所也 而名之亦以此 苟有是心 所觀所聞所坐所臥者 何莫非養性之助也 觀山之靜也 思所以吾心之本體寂然而不動 觀水之流也 思所以吾心之大用周行而不滯 竹取其中通而有節 松愛其勁立而後凋 則山也水也

松也竹也 一閑物也 能助於養性之功如是 至於明花細草 生意蕩然 澄沼月色 絕無纖埃 抑不知沙溪公養之樂 亦有得於斯者耶 古之人 充養之道 無所不用其極 而得之於物者亦多 有遠取諸物而畫出至理者 有曰仁者似山 智者似水者 有不除庭草者 有採菊而悠然者 靜觀萬物 皆有至理 而衆人觀之 則峙者徒知其爲山 流者徒知其爲水 草木徒知其爲草木也 君子觀之 則峙者必知其所以峙 流者必知其所以流 草木必知其所以爲草木 既得其萬物之所以然 則鳶飛魚躍 上下昭著 滿山青黃 無非太極 一源洞澈 彼此無間 體之於吾身 得之於吾心 其於養之功 不其大矣乎 然則山逶迤而呈翠 水瀾瀾而鳴除 上下方塘 雲影徘徊 蒼松脩竹 左右森立者 此亭之所以爲勝 而養性之得其助者非一物矣 況萬巾草履 拱冠童五六人 或容與於柳汀桃蹊 或輕艇小楫 逶迤長川 閉情雅興 遇物怡然 依稀有舞雩之意 則與其結組飄飄 抵死乾沒者 孰樂孰苦 其養之與失之之相去 復何如也 噫 世已亂矣 人已亡矣 自栗谷棹摧之後 繼而作者泯泯無聞 惟沙溪公積學種德 爲後學倡繼 自今年守窮寂 益勉其所未盡者 使如僕俛俛摘埴於冥途者 庶有所比依 此僕所望於沙溪公者也 僕少而不力 向老無聞 逮此禦魃 與死爲隣 中宵不寐 慨然興懷 愧負平生師友之望 天其或者玉汝於成 使之動心忍性於窮荒困瘁之中 以大其志業耶 瓜歸投笏 相從於寂寞之濱 收放養枯 顧此名而共助也 至於擴而施之於事業 則時耶命耶 孰使之然耶 孰使之不然耶 非吾所可期也 守夢記 時萬曆癸卯觀燈日 草溪後人鄭曄記

양성당기[養性堂記]

사계공이 만력(萬曆) 임인(壬寅, 1602, 선조 35)으로부터 연산의 선영(선대의 유적) 아래로 돌아와서 살았는데 옛 정자가 있었으니 바로 최사문 청강공(崔斯文 淸江公)이 지은 것이다. 그 후손이 지키지 못하므로 사계의 백조부(伯祖父)가 사서 얻었으니 정자가 김씨 가문으로 들어온 지가 삼대나 되었다. 정유년(丁酉, 1597, 선조 30)에 왜적이 호서를 교란함에 그 정자 또한 면하지 못하고 오직 옛 터만 남아 있으니 사계공이 수집해서 새로 짓고 그 칭호를 양성(養性)이라 하니 양성은 바로 그가 힘들여 쌓은 것으로 늙도록 게으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 스스로 일깨웠던 것이다. 내가 변방에서 죄를 기다리고 있으니 사계가 사는 곳에서 이천 여러나 된다. 사계공이 서신으로 사생(死生)을 물으면서 말하기를 '정자의 위와 아래 앞과 뒤에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며 솟는 샘도 있고 소나무 대나무도 있다'고 하면서 모든 볼 만한 것을 말하여 기문(記文)을 구하였다.

아! 서로 작별한 지가 오래되었고 서로의 거리도 멀어 그는 내가 걱정 속에 해를 보내고 아침저녁으로 죽기만 기다려 붓과 먹 사이에는 뜻이 없음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계공은 내가 사모한 바이고 양성은 내가 뜻하는 바이며 계산과 수석의 명승은 내가 그 사이에 날아가고 싶은 바로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이다. 마음에 감상이 있고 가슴에 대탄이 있지 않을 수 없어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웃음을 여미고 앉아 북을 잡고 써서 보내니 문장이 아늑은 따질 바도 아니다. 대저 사람은 성품이 있지 않은 이 없으나 그것을 기를

줄 아는 자가 드물며 비록 조금 기르는 방법은 안다해도 능히 기르는 자는 전연 없으니 이러한 세상에
 사계공이 어려서부터 울곡(栗谷)의 문하에서 도를 배워 의리에 젖고 근본을 배양한 지 해가 쌓였으니 기르는
 방법도 밝게 알았고 기르는 공부에도 또한 독실하였다. 조용할 때는 보존해서 기르고 움직일 때는 성찰해서
 길렀다. 어버이를 섬기면 돌아보고 살펴서 그 정성을 다하고 벼슬에 있으면 돌아보고 살펴서 그 힘을 다하고
 발언해서 그 질서를 잃지 않음도 이를 기쁨이고 사물에 응해서 그 법칙을 함하려 함도 이를 기쁨이었다.
 그러함에도 마음에 부족하게 여겨 잠깐 사이라도 혹시 게으르게 될까 두려워 해서 모든 눈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자경문을 붙여 놓았으니 정자는 높고 쉬는 곳인데도 이름을 이와 같이 지었다. 참으로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보고 듣는 바와 알아 있는 바와 누워 있는 바가 성품을 기르는 도움이 되지 않을 곳이 없으리라. 산의
 조용함을 보면 내 마음의 본체가 조용해서 움직이지 않는 소이연(所以然)을 생각하고 물의 흐름을 보면 내
 마음의 활용이 두루 유행해서 막히지 않음을 생각할 것이다. 대나무는 그곳이 통하고 절개가 있음을 취하고
 소나무는 굳게 서서 뒤에 까지 푸르름을 사랑할 것이다. 산이며 물이며 소나무이며 대나무가 하나의 한가로운
 경물이지만 능히 성품을 기르는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와 같으니 밝은 꽃, 가는 풀에도 생기가 충만하고
 맑은 못, 달빛에도 티끌이 없으면 사계공의 기르는 즐거움이 또한 얻음이 있는가 모르겠도다. 옛날 사람은
 충만하게 기른 도가 그 지극함을 쓰지 않음이 없었으며 경물에서 얻은 것도 멀리 물건에서 취해서 지극한
 이치를 그려내는 것이 많았다. '인자(仁者)는 산과 같고 지자(智者)는 물과 같다'는 말도 있고 뜰 밑에 풀을
 제거하지 않는 자도 있으며 국화꽃을 따라서 유연한 자도 있으니 만물을 조용히 보면 모두 지극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못 사람이 솟은 것은 다만 산이 되는 줄 알고 흐르는 것은 다만 물이 되는 줄 알고 풀과 나무는
 다만 나무가 되는 줄 안다. 군자가 보면 솟은 것은 반드시 솟는 소이연을 알며 흐르는 것에는 반드시 흐르는
 소이연을 알며 풀과 나무에는 반드시 풀과 나무가 되는 소이연을 알게 된다. 이미 만물의 소이연을 알면
 소리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 노는 것이 위와 아래로 밝게 나타나며 산에 가득한 푸른 빛 누른 빛이 태극이
 아님이 없다. 한 근원으로 통해서 저것과 이것의 사이가 없으니 내 몸에 체현하고 내 몸에서 터득한다면
 기르는 공부에 있어서 과연 위대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산이 구불구불 푸르름을 보내고 물이 잔잔하게 섬돌
 밑에서 소리내고 위 아래 못 물에 구름이 배회하고 푸른 소나무 긴 대나무가 왼쪽 오른쪽에 벌려 서 있는
 것은 이 정자가 명성이 되는 소이(所以)로서 성품을 기르는 도움을 얻는 바도 한 물건뿐 아니리라. 더구나
 갈건(葛巾)과 잠신으로 관동(冠童) 5-6명을 끌고서는 버들 냇가 복숭아 오솔길을 건너며 더러는 가벼운 배와
 작은 돛으로 긴 냇물에 오르내려 한가로운 풍경과 아담한 흥미가 경물을 만나는 대로 호문해서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는 뜻과 비슷하다면 인곤을 맺고 갯끈을 휘날리며 죽을 때까지 빠져 있는 자에 비하면 누가 즐겁고
 누가 괴롭겠는가? 그 기르나 잃느냐의 거리는 다시 여떠하겠는가? 애 세상은 이미 어지러워졌고 사람은 이미
 없어졌도다. 울곡이 돌아간 후로 이어서 일어난 자가 들은 바 없는데 오직 사계공이 배움을 쌓고 덕을 쌓아
 후학의 길잡이가 되었도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굳게 지켜 더욱 그 미진한 데를 힘써서 나와 같이 미로에서

해매는 자로 하여금 의지하고 덮어주는 바 있게 한다면 이것이 나와 세계공에 대한 고망이네. 나는 젊어서 힘쓰지 못했고 늙어서 알려질 것이 없으니 이제 어매(禦魅)에 미쳐 죽음과 이웃이 되었으니 밤중에 잠을 못이루고 개탄하며 감회를 일으켜 평소 스승과 벗의 희망을 저버렸다. 하늘이 혹시 너를 옥처럼 이루게 해서 궁하고 곤체한 가운데서라도 마음을 일깨우고 성격을 참게 하여 그 뜻과 사업을 크게 할 것인가? 임기가 다해서 [瓜歸] 돌아가거든 홀(笏)을 버리고 이 이름을 돌아보면서 함께 힘쓰리라. 넓혀서 사업에 베푸는 것은 시대인가?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내가 가히 기약할 바가 아니로다. 때는 만력(萬曆) 계묘(癸卯, 1603, 선조 36) 관등(觀燈 음력 4월 8일)에 초계후인 정업(鄭暉)은 기록하노라.

※ 鄭暉, 『守夢集』 卷3, 雜著, 「養性堂記」에 수록.

※ 번역 : 『돈암서원(遼巖書院)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